
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인천의 꿈* 대한민국의 미래	
배포일자		2022년 12월 28일(수) 총 3매			
담당 부서	복지정책과	담 당 자	• 복지정책팀장 • 담당자	남경선 ☎440-2911 조귀환 ☎440-2912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공감복지^{2.0}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든다

- 28일, 유정복 시장 주재 ‘2023년도 복지국 주요업무 보고회’ 개최 -
- 민관협력 강화,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확대 -
- 고독사, 은둔형 외톨이 등 신(新) 사회적 위험 발생에도 적극 대응 -

인천시가 2023년 ‘시민이 행복한 도시, 공감복지^{2.0}’ 추진을 목표로 5개 전략을 제시했다.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민선8기 비전 「인천의 꿈, 대한민국의 미래」 달성을 위한 2023년 복지분야 업무보고를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공감복지^{2.0}은 민선6기 ‘시민과 함께 나누고 느끼는’ 공감복지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, 변화된 사회복지 환경을 고려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고, 기존의 복지사업에 더해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민선8기 복지정책의 골자다.

시는 이를 위해 ①시민 안심 복지체계 구축 ②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③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인천 ④건강하

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 구현 ⑤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·예우 증진 등 5대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했다.

우선 인천시는 ‘시민 안심 복지체계 구축’을 통해 소외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한다. 이를 위해 ▲4천여명으로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민중심의 지역복지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▲저소득층을 생계불안과 긴급위기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한 SOS 긴급복지(2,780명), 디딤돌 안정소득(250가구) 등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추진한다. ▲또, 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민선8기 공약사항인 사회복지회관 신축 이전을 차질없이 진행하고,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한다.

또 ‘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’ 및 신(新) 사회적 위험 발생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서는 ▲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활성화, 사회공헌기업과 사회복지현장의 안정적인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해 민간자원 개발을 확대하고 ▲가족부양의식 변화, 사회적 관계망 약화 등으로 인한 고독사, 은둔형 외톨이 등 신(新) 복지수요 사업을 발굴해 대처할 계획이다.

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경제적 기반 및 환경을 조성한다. ▲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2022년 971명에서 내년도 1,058명으로 확대하고, ▲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를 통해 중증장애인 50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며 ▲중증장애인 시민옹호사업(옹호인 234명), 장애인인식개선 교육, 공공행사 수어통역인 배치 확대(2명) 등을 통해 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 및 편의증진 사업을 강화해 ‘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

드는 인천’ 구현한다는 구상이다.

‘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 구현’ 계획은 ▲기초연금 지급(352,870명), 품위유지비 지원(만7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40,545명, 연 10만원) ▲시 고령화 특성을 반영한 노인일자리 사업 내실화 ▲관내 노인복지관 등 48개 기관, 총 5,700여명 대상 무료급식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한다.

끝으로, ‘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·예우 증진’을 위해서 ▲통합 보훈복지회관 건립 추진을 통해 보훈가족들에게 질 높은 편의를 제공하고 ▲참전유공자명예수당 등 4개 유공자 수당*을 일괄 인상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.

* 참전유공자 8~10만원→10만원, 독립유공자 5만원→7만원, 전몰군경 유가족 5만원→7만원, 그 외 국가보훈 대상자 월 3만원→5만원

유정복 시장은 “공감복지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만족과 감동이란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,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, 정책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하며, “‘시민이 행복한 세계초일류도시 인천’의 중심은 복지인 만큼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바탕으로 인천만의 독창적인 정책을 추진해 달라”고 당부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

‘인천시 인터넷방송’(<http://tv.incheon.go.kr/>) ‘포토인천’에 게시되어 있습니다.

<붙임> 2023년 복지국 주요업무계획 요약본 별첨